

머리글

서울은 인구 1천만이 거주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시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지닌 지 600년이 되었다.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한나라의 중심도시로 그 위치를 持續시켜 왔다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었다.

현 서울시역내의 암사동지역에는 기원전부터 거주가 이루어져 한강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거주에 적합한 環境임을 입증해 왔다. 그 후 삼국시대 동안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쟁탈전을 벌인 것도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인 중요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 南京이 설치된 것도 이 지역이 한반도의 중요지점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지리적인 배경을 지닌 서울은 1394년 조선시대의 수도로서 건립된 이래 600년간 우리나라의 중심지로서 모든 기능이 集積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수도 서울을 遷都 600주년을 기념하여 600년동안의 역사지리적 변천을 고찰하여 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서울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부분적인 연구였을 뿐 시기나 내용면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한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점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서울이 조선왕조의 수도로 정해져서 현재까지 變遷해 온 과정을 주제별로 나누어 몇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600년간의 서울의 경관변천을 인식할 수 있게 한 연구였다.

정치지리학을 전공하시는 임덕순교수는 서울이 조선왕조의 수도로 선정되어진 이유와 서울의 상징성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기후학을 전공하

시는 김연옥교수는 서울의 자연환경, 즉 기후와 지형의 변천을 고찰하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까지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남아있는 지명이나 지형·지물 등을 통하여 과거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은숙교수는 도시교통에 관한 내용으로 조선시대 서울의 교통현황을 고찰하고 현대문명이 도입된 후 이루어진 변천을 함께 서술하였다. 또한 육상교통 뿐만 아니라 하상교통 및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양보경박사는 조선 후기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와 행정구역의 변천을 고찰하여 서울에 어떠한 경관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서술하였다. 이혜은교수는 정치적으로는 조선시대이후 일본의 통치하에 있던 시기부터 현재 대한민국시대까지, 사회·경제·문화적으로는 현대문명이 도입되어 여러가지 면에서 변천을 가져오기 시작한 20세기초부터 현재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80여년 간의 토지이용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서울의 景觀變化를 분석하였다.

1년여에 걸친 연구를 끝마치고 研究叢書로 출판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눈에 띄고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더욱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공동으로 또는 각각의 연구자 나름대로 다음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었다. 본 연구가 서울에 관한 연구 중 하나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그것으로써 본 연구를 수행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겠다.

연구과정 중에서 연구자료를 구하기 힘들었고 과거를 復原하기 힘들었던 이유로 처음 시도했던 것보다는 내용구성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연구를 마치고 난 후의 현재는 혹시라도 내용이 소홀하지 않을까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마음뿐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우선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학연구소의 안두순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인의 재촉이나 부탁을 아무말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연구해주신 연구자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굳은 일도 마다않고 도와준 동국대학교 대학원의 김일림선생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제도작업과 원고정리를 도와준 경신중학교의 고광삼 선생, 많은 조언과 원고의 교정 등을 도와준 정광충박사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994년 12월
목멱산을 바라보며
책임연구자 이 혜 은